

“선생님 말씀은 삶 밝히는 지혜의 등불”



‘DJ 추모어록전’ 기획 정진백 한국사상문화원장

‘당신이 남기신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며 따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많이 그림습니다.’ ‘많이 배우고 바른 내용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광주김대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어록전’에 비치된 방문록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유명서예가 37명이 180여점 제작

김대중 전 대통령 1주기를 맞아 지난 8월 서울인사동한국미술관에서 시작된 이번 어록전은 전남도청과 광주 전시(10월2일까지)를 거쳐 목포(10월 8일~13일 목포문화회관)에서 마무리된다. 당초 1주일 예정이었던 서울 전시는 관람객들이 밀려들어 2

주요 연장됐고 1만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광주 전시에도 일 평균 3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김대중 선생은 한국 현대사의 큰 그림을 그려준 스승이자 멘토죠. 분열의 시대에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셨던 분이요, 불확실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DJ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김대중 사상과 정신을 ‘현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이번 어록전을 기획한 정진백 한국사상문화원장은 “그분의 삶과 사상이 담긴 ‘어록’은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해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씨가 어록전을 기획한 것은 지난해 9월부터다. 한창 DJ 평전을 쓰고 있던 정씨는 갑작스런 서거 소식을 듣고 허탈감에 빠졌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등

경지장에서 처음 DJ를 접했던 그는 1987년 DJ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적 지지를 이끌었고, 1991년 ‘사회평론’ 발행 당시 DJ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서예가 담헌 전명옥씨와 술잔을 기울이던 정씨는 “DJ 사상의 핵심을 나타낼 수 있는 어록전을 한 번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한 전국의 내로라하는 서예가 37명이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혔고, 모두 180여점의 어록을 제작했다. 또 다양한 인사들이 행사위원회에 동참, 힘을 모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선정할 것인가였다.

“그분의 ‘사상 지도’를 폭넓게 드러내려고 했어요. DJ 어록은 ‘사상의 필수 이자 심장’입니다. 말씀 하나 하나, 글귀 하나하나를 살갓 아래 바로 피를 뽑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사상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또 어떻게 변화·발전해 왔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고, 그의 글을 기억하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평화·민주 등 정

치 사회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부부의 삶, 친구 문제 등 소소한 이야기들도 실으려고 했습니다.”

시민 섬기는 공무원 관람했으면

현재 김대중학살상은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김대중평화상, 김대중인권상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 DJ어록전 행사위원회는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축이 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역사를 발전시킨 이들을 위한 인권상·평화상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익금 전액을 평화센터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김대중선생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예요.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지역의 활동가와 공무원들이 꼭 관람했으면 합니다. 선생의 정치 철학을 직접 접하면 어떻게 시민과 도민들을 행복하게 할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문의 011-275-43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GS칼텍스봉사팀 노인센터 위문



GS칼텍스 여수공장은 2일부터 16일까지 전기·보일러·사진 등 전문지식을 나누는 ‘프로보노(pro bono)’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해’라는 뜻의 라틴어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익을 위해 지식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수공장의 기계·전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전팀과 정비팀 봉사대는 2일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돌산 둔전·군내리 독거노인가구 등 20여 세대를 방문해 보일러와 전기 등을 수리한다.

8일에는 정유3팀 봉사대가 동여수노인복지관과 함께 독거노인가구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하고, 16일에는 여수공장 사 진동호회와 여사원들이 공동으로 ‘장사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영란 전남여성단체회장 ‘동백장’

‘노인의 날’ 광주·전남 9명 정부포상

지난달 30일 제14회 노인의날을 맞아 유영란(62·사진) 전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9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유 회장은 지난 15년간 1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2002년부터는 독거노인 5명을 본인의 친정 어머니와 함께 모시는 등 노인복지에 힘써왔다. 지역 독서실 5곳을 위탁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했다.

오건수(73·곡성군 목사동면)씨는 마을 노인회장으로 30년간 주민들의 일을 내일처럼 챙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임향신(여·56)씨는 전남도 노인복지 업무(5급)를 맡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모범을 보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안필환(68·강진군 강진읍)씨는 소외계층 노인에게 대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종수(37) 고흥노인복지관 대표, 고흥최초의 노인복지관 운영공로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시모와 치매를 앓고 있는 친정 부모를 잘 봉양한 최병숙(54·광산구 송정동)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년 동안 천혜경로원을 후원한 박세화(76·동구 학동)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광주공원 노인복지관과 이철(70·남구 월산동)씨는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필수·윤현석 기자 bung@



“문화도시, 단군 섬김부터 시작”

개천절경축행사위 장두석 집행위원장

“한일갈등이 있는 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 개천절 행사는 나라를 세운 후 우리 민족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반만년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장두석(73) 개천절경축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단기 4343년을 맞아 오는 3일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 단성전에서 열리는 ‘국조대제, 개천절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개천절경축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씨는 “한 때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의 단군문화 말살정책으로 민족사의 줄기가 꺾이는 처욕과 통탄의 역사를 겪었다”며 “하지만 반만년의 오랜 역사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용기와 강한 의지로 이를 이겨오면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한일갈등예방 100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국조대제는 단군성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고조선과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으로 맥이 이어져 홍익인간(弘益人間)·재세이화(在世理化)를 기원하던 전통 제례의식으로 광주에서는 지난 1998년 이래 매년 개천절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광주지역이 개천절 행사 참여도가 가장 낮은 점을 걱정하며 단성전 증건과 개천절 국조대제 행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파와 종파, 계층간 이념을 초월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국조단군의 후손으로서 광주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장 위원장은 “민족 정기 선양 없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룰 수 없으며 문화도 없다”며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중



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조 단군을 숭모하고 추앙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천절경축행사위원회는 민족문화창달과 경축행사를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은행 016-107-340006 사)국조송모회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인사

- ◆해안경찰청
 - ◇치안정감 승진 ▲차장 임창수
 - ◇치안감 승진 ▲기획조정관 김석균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 ◇경무관 승진 ▲남해지방청장 김중규
 - ◇경무관 전보 ▲정보수사국장 이정근 ▲동해지방청장 김상철 ▲국제협력관 이원일 ▲서해지방청장 이주성
- ◆조선대
 - ▲사회과학대학장 오수열(정치외교학부 교수)

내방

- ▲오형철(신지애골프아카데미 추진위원장)씨

광주전남건강관리협 복지시설 성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본부장 조재현)는 남구 봉선동의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귀일만들레집’과 노숙자 시설인 ‘여수금강원’을 찾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건강관리협회 제공>

곡성휴게소 ‘고객과 함께 뮤직 페스티벌’



곡성(논산방향)휴게소를 운영하는 김성수 안국산업(주) 대표는 최근 곡성 휴게소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곡성 휴게소 제공>

이은방 광주시의회 부의장 체전 사격팀 격려



이은방(민주·북구 2)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제91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남부대 사격팀 훈련장을 찾아 선수와 관계자를 격려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박준성(목포 사랑방신문대표)·김경열씨 장남 천정근 김희수·조민정씨 장녀 현경양=2일(토) 낮 12시 목포 알리앙스 1층(금강홀)
- ▲박영범(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정중순씨 장녀 혜옥양 명래식·모덕식씨 장남 성훈군=2일 오후 1시 목포 웨딩갤러리 1층(아일랜드홀)
- ▲주영신(도교육청)·박성욱씨 차남 현수(광산구 관광체육시설 과장)군 정현수(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시절부)·조문자씨 장녀 지향(치평중 교사)양=2일(토) 오후 1시1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센터 1층(영빈관)
- ▲손정욱·박일순씨 장남 상원(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군 최성관·위경애씨 장녀 혜진(KBS 광

동창·동문회

- ▲비야초등학교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회장 이정일)=3일(일) 오전 10시 모교대 운동장(우천시 대강당) 062-954-3427.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일) 월례회=5일(화)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일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

모집

-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교사, 수강생=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수도방위시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김기민(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 ▲안암골 축구회 회원=일요일 오후 운암동 예술고, 011-609-2850

부음

- ▲정대만씨 별세 윤순·윤정·승운·영초·차순·송초씨 부친상=발인 2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고수복씨 별세 김만기·경주·경찬씨 모친상=발인 2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윤모래씨 별세 김복호·신호·현철·영남·영순씨 모친상=발인 2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전일찬

-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오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 ▲(사)전남장애인재활협회 지회=전남 시·군 지역(순천, 나주 제외), 복지분야 경험자로 덕망있는 자. 061-334-3636.
- ▲인우회 회원=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서정남(전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씨 별세 재조·선경씨 부친상=발인 1일(금) 광주 천지장례식장 201호 특실. 062-527-1000.

강신월씨 별세 전면규·경규·성재·명숙·명선·인숙씨 모친상=발인 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박내홍 님(남/71세) 子/子孫: 박창수, 보현, 신자은 女/ 孀: 박성숙·이창남 ·호실:301호·발인:10월1일·장지:해미안선영	故 조옥현 님(남/91세) 子/子孫: 조연강·이예순, 언기·주영란 연진, 양동원 女/ 孀: 조연아·민승식, 연희, 연화, 정금기 ·호실:401호·발인:10월1일·장지:순천주암선영
故 최대호 님(남/61세) 子: 최민호, 민수 女: 최현진 未亡人: 김정숙 ·호실:101호·발인:10월1일·장지:영락공원	故 이남철 님(남/39세) 子: 이현철 未亡人: 강신희 ·호실:102호·발인:10월2일·장지:영락공원

李 金 浩 喪 禮 式 場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조은석씨 부친상 안준호·최연동·조성근 씨 부친상 발인: 10월1일(금) 10시00분 장지: 단양 대덕면 선영 연락처: 250-4411

▲박정민씨 부친상 발인: 10월1일(금) 08시 00분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50-4406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